▶ 맛과 멋 찾아 떠나는 경남 사천

사천 대방과 남해 창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3.4km의 연륙교. 창선·삼천포대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고 있다.

은빛 전어 "아~" 감탄이 절로 푸른 바다

맛 그 집 며느리는 아예 집을 나가지 않았다." 어느 소설이나 영화의 제목이 아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돌아온다"는 속담을 살짝 패러디해본 것이다. 며느리로 하여금 집을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어(錢魚)의 계절이 돌아왔다. "봄 도다리, 가을 전어" "가을 전어 머리에는 참깨가 서 말"이라는 말에서 보듯 전어의 참맛을 느끼기에는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무렵이 안성맞춤이다.

서부경남 해안에 위치, 북서쪽으로는 진주와 하동에 남동쪽으로는 남해와 고성에 접해있는 사천. 한려해상 관광권의 중심도시인 사천은 전어로 일찍부터 이름이 난 곳이다. 갯벌이 좋기로 소문이 난 사천만에서 잡히는 전어는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맛이 유달리 고소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천의 명소들은 나중에 둘러보기로 하고 사천 남양동에 있는 자연산 횟집을 찾았다. 식당 입구에 있는 수조에는 은빛 비늘을 자랑하는 전어들이 유유하게 헤엄을 치고 있다.

요즘에는 전어를 양식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식당의 전어는 바로 앞에 있는 사천만에서 갓 잡아올린 것. 마침 식당 주인은 배를 타고 전어를 잡으러 나갔고, 주인의 형님인 서원갑 노룡어촌계장이 대구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다. "사천에서 전어는 7월부터 10월까지 잡지요. 추석이 지나면 잡히는 양이 줄어 가격이 훨씬 비싸져요. 사천에서 잡히는 전어는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전어는 벼가 익을 무렵,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 가을이면 지방질이 가장 많아져 온몸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른다. 가을 전어의 기름 성분은 봄, 겨울철보다 최고 3배나 높다. '깨가 서 말'이란 말도 그래서 생겼다.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재미있다. 맛이 너무 좋아, 사는 사람들이 돈(錢)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전어라고 불렀다는 설, 고대 중국의 화폐 모양과 생김새가 비슷해 붙인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다.

전어는 회와 구이, 무침으로 주로 먹는다.

빼째 썬 전어회부터 맛을 봤다. 향기로운 깻잎으로 전어회와 얇게 썬 마늘, 된장을 쌈을 싸 먹으니 입안 가득 고소한 맛이 감돈다. 처음에는 뼈가 씹혀 거북하기도 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해진다. 전어회 한 쌈에 소주 한 잔이면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회에 이어 노릇노릇하게 구운 전어구이를 집어들었다. 전어구이는 대가리와 내장을 발라내면 헛것을 먹은 셈. 일단 손으로 대가리와 꼬리를 잡고 통째로 들고 먹는다. 처음엔 단단한 뼈가 부담스러웠지만 계속 씹으니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하다. 한창 살이 올라서인지 두툼한 살점은 입에 착착 감긴다.

전어회

전어구이

멋 "푸른 창공, 푸른 바다 살기좋은 사천!" 인접해 있는 진주와 하동, 남해와 고성 등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사천에도 둘러볼만한 명소들이 많다. 사천을 수식하는 "푸른 창공·푸른 바다"라는 라는 말이 절대로 빈 말이 아니다. 사천에서 자랑하는 '사천8경'을 모두 찾지 못한채 몇곳만 둘러봤지만 '아!'하는 감탄성이 절로 나온다.

▲창선·삼천포대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됐다는 얘기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를 이어주면서 푸른 바다 위에 걸쳐 있는 다리들을 건너는 순간 아름다운 길로 뽑힐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천 대방과 남해 창선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총연장은 3.4km. 사천쪽에서 출발하면 삼천포대교를 시작으로 초양대교, 늑도대교, 창선대교, 단항교 등 5개 다리를 건너게 된다. 5개 다리의 모양도 모두 달라 국내 유일의 '교량 전시장'으로도 일컬어진다. 사천8경 가운데 1경으로 꼽히고 있다. 야간에는 다리에 조명을 비춰 푸른 바다와 빛이 멋들어진 조화를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남일대해수욕장·코끼리바위

신라 말의 대학자 고운 최치원이 남녘 땅에서 제일의 경치라고 해서 '남일대'란 이름을 붙였다. 서부경남에서 조개껍데기 모래 해수욕장으로는 유일하다. 다소 철이 지났지만 남일대해수욕장의 풍경은 매우 아름답다. 바닥이 훤이 보일 정도로 물은 맑고, 둥근 모양의 해안선은 곡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왼편으로 난 산책로를 따라 수십여m를 가면 코끼리바위가 보인다. 코끼리가 바다에 코를 박고 물을 먹는 듯한 형상이다.

▲비토섬

사천만을 가로지르는 사천대교를 지나 서포면으로 접어든다. 비토섬을 찾아가는 길. 연륙교인 비토교를 건너 비토섬에 닿은 후 섬 동쪽 끝에 있는 월등도를 바라보는 곳에 차를 세운다. 월등도와 그 옆으로 거북섬이 보인다. 그 뒷편에는 토끼섬과 목섬이 있다. 비토섬 갯벌은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은 물론 자연생태 체험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비토섬 갯벌은 사천8경으로 꼽히고 있다. /대구매일=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사진=정재호기자 newj@msnet.co.kr

사천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래식 멸치잡이 방식 죽방렴.

코끼리바위.